**주님의 멍에를 메고**

**<마태복음 11장 28-30절>**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성경말씀 가운데, 곱씹어볼수록 어렵고 심오하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바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삶으로만 체득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무겁게 느껴질 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부대끼며 사는 일이 가장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느 순간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제국의 정치-경제적 압제 아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지울 줄 알았지, 그 짐을 덜어주거나 함께 져주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죄책감과 무력감의 짐이 그 평범한 이들의 어깨 위에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하시고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어깨에서 죄책감과 무력감의 짐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지금의 삶이 그저 고달프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삶의 환경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혼자 지고 가던 짐의 상당 부분을 주님께 맡겼다 해도, 어느새 또 다른 짐들이 우리 뒤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혼자 지고 가려 애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쉼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찌 된 것입니까?

삶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생각될 때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크리스천 심리학자였던 Scott Peck 이란 분이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머리에서 했던 말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쉬울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일단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앞에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더 어려운 삶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상황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 겪는 억울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역설적인 생명의 길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까지만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또 바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거북스런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축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라고 설명합니다. 노동을 위해 소나 말의 목에 씌우는 마름모꼴 모양의 기구입니다. 이 멍에에 줄을 연결해서 쟁기로 밭을 갈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 짐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것을 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쉼을 주시겠다 하시더니 왜 갑자기 예수님은 다시 고된 노동을 연상시키는 멍에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지쳐서 주님께 나아온 이들에게 왜 다시 부담스럽게 그분의 멍에를 메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머리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에만 그 삶 속에서 체험되고 고백될 수 있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멍에를 메고 살아갈 것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 어떻게든 우리는 내 뒤에 끊임없이 달라붙는 무거운 짐들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쉬운 멍에가 있을 것입니다. 삶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유행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멍에가 실상은 쉬운 멍에요, 그분의 짐이 실상은 가벼운 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진정한 쉼을 원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를 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일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짐을 내가 함께 지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짐을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소 한 마리에게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나의 멍에를 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짐의 무게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소들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소 두 마리가 처음부터 좋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 새롭게 합류한 소는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점점 그 일에 익숙해지게 되고, 후에는 훨씬 수월하고 능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던 그 함께하는 멍에도 차차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의 짐을 함께 지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문 28절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짐이란, 이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과 그분이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짐을 당신 옆에서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지고 가자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나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방식은 각자 자기 짐을 알아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혼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과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삶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옆에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움직이며 짐을 함께 지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점차 우리는 그 일에 적합한 주님의 좋은 파트너들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짐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건은 내가 지고가야 할 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멍에를 메고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지 결정하셨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는 가운데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는 가운데**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진정한 쉼을 갈망하는 이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